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 축하 메시지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1만 3천여 대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사에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인 당원들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실상부한 국민참여정당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온 후보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뜨거운 경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감정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앙금이 당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껴

온 그 어느 정당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후보들은 흔쾌히 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민주정당의 전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전통 위에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 누가 승리하든 열린 우리당은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개혁의 정당, 국민 모두를 하나로 아우를 국민통합의 정당, 선진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갈 책임정당으로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나는 열린우리당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아무도 그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불리한 선택을 감당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야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역사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당원 여러분에게 이 결단의 의미를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리사욕,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각오한 결단,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명에 이르는 의원들의 집단적인 결단,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이 결단의 의미는 열린우리당의 역사 속에 살아서 면면히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관용과 승복의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복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폭력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독선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만과 독선의 문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더 큰 관용으로 아우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일은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는 협력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범을 실천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구시대의 정당과 분명하게 차별화될 것이며, 그것은 또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당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정당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국민정당,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당,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정책정당, 국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책임정당이 됩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열린우리당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